

보도설명자료 (‘19. 8. 2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「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」는 빠른 시일 내
부지의 지하수 화학성분 분석을 실시할 계획임
(세계일보 8.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◇ 「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」는 빠른 시일 내 「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」 부지에 대해 지하수 화학성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

◇ 8월 22일 세계일보 <지열발전소 폐수에 화학물질 생태계 교란 등 환경오염 우려>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- ① 「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」 추진과정에서 투입된 물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
- ② 「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」 주관기업인 넥스지오 측은 화학물질을 쓰지 않아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믿기 어려움
- ③ 만약 주입된 물에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면 인근 토지와 지하수가 오염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어 관련 조사가 필요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□ 「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」는 그간의 논의를 통해 부지의 지하수 화학성분을 분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

* 「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」 부지의 안전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지진·지하수 전문가 및 포항시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·운영(‘19.5.8~)

○ 이에 따라, 산업부는 지하수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금년 추경예산 10억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,

- 동 예산을 활용한 「지열발전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」이 8.12일자로 공고되어 사업기관 선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

○ 「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」는 동 사업을 통해 지하수 오염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임

※ 문의: 포항지열발전조사지원단 장근무 과장/박계영 사무관 (044-203-5893)